

해외 석유개발사업의 당면과제



이철규

〈 대한석유협회 석유개발팀 차장 〉

지난 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하여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을 요청한 소위 IMF사태발생 이후 급격히 침체되기 시작한 해외석유개발사업은 최근 대부분의 산업이 IMF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IMF이전으로 회복되는 추세인데 반해 아직까지도 길고 긴 터널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느낌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책으로 강도 높게 추진해 온 대기업 구조조정과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해외석유개발사업의 수익성이 저하된 반면 환율 상승으로 투자비에 대한 부담이 배가됨에 따라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면서 투자기간이 중장기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해외석유개발사업이 어느 기업 할 것 없이 구조조정대상 0순위로 지목되었다. 일부업계에서는 참여지분 매각을 통하여 사업비를 조달하려 노력하였으나 그마저 여의치 못하여 투자여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규사업 참여 불가방침으로 이어져 침체국면이 본격화되었으며, 최근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제반 여건이 마련되지 못함에 따라 사업추진을 지탱할 기반체제가 뿌리째 흔들리는 심각한 지경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은 해외석유개발사업 진출현황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제1, 2차 석유파동을 겪은 후인 1981년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참여초기 경험부족과 탐사광구위주의 사업참여로 많은 사업이 실패하여 '90년대 초 조정국면을 맞이하였으나 '95년 이후 석유개발사업에 대한 재평가와 재인식으로 개발·생산유전의 매입과 동시에 탐사사업을 병행하는 포트폴리오 개념이 도입되었고, 이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도 개발사업에 대한 융자지원 등 정책적인 뒷받침으로 신규사업참여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97년까지 3년 동안 신규사업참여가 41개 사업에 달할 정도로 활황세를 보였다.

그러나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신규사업참여가 격감하여 '98년에는 5개 신규사업에, '99년에는 카타르 가스전을 제외할 경우 석유공사가 진출한 남미 수리남 탐사광구 1건에 불과하며 민간기업은 단 1건의 신규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한 석유개발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으며, 금년 상반기 동안에도 베트남 16-2 탐사광구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표1 참조).

이렇듯 신규사업 참여가 두드러지게 격감함과 동시에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의 수도 급격히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 협회의 해외석유개발사업 참여 회원사수는 IMF 이전에 26개사에 달하던 것이 2000년 7월말 현재 18개사로 줄었음은 물론 이 중에서도 4개사는 사업참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14개사에 불과한 실정이다. IMF 이전 26개 회원사중 8개 회원사가 석유개발사업을 포기, 협회를 탈퇴하였으며, 3개 회원사는 석유개발팀 해체 및 개발사업 포기, 8개 회원사는 사내 타부서와 통합 등이 이루어졌으며 이밖에 2개 회원사도 구조조정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을 축소하는 등 모두 21개 회원사가 팀해체 또는 조직을 축소하였다.

무엇보다도 석유개발사업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하는 것은 석유개발사업의 근간이 되는 전문인력의 감소이다. 이처럼 석유개발사업 참여 업체들의 구조조정 여파로 석유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전문인력 역시 격감하여 IMF 이전에는 150명을 상회하던 업계인력이 현재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60여명 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더욱이 기술인력의 경우 101명에서 35명으로 65%나 감소하였

고 앞으로도 감소추세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표2 참조).

이 정도의 인력으로 과연 석유개발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인력의 양성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더욱이 전문성과 경험이 크게 요구되는 석유개발사업에서 10여년을 몸담아 오던 많은 전문인력들이 석유개발분야를 떠났고 또 떠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아직 남아있는 소수의 인력마저 업계를 떠난다면 어떠한 정책적 배려와 투자노력이 집중되더라도 석유개발사업은 단기간에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중국이 해외석유개발시장에서 메이저보다 2배 이상의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여 입찰에 성공하는 등 공격적인 광구확보를 추진하여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배경에는 200만명에 달하는 석유개발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인건비도 우리의 십분의 일정도로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일산 500만 배럴을 생산하는 경험과 노하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석유공단의 해외석유개발사업에 대한 막

〈표1〉 해외석유개발사업 추진실적

구 분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6말	
신규 사업 참여 (A)	생 산	-	-	-	2	8	-	1	-
	개 발	1	1	1	-	2	-	-	-
	탐 사	1	5	9	10	9	5	1	1
	소 계	2	6	10	12	19	5	2	1
사업종료(B)	3	6	3	5	-	3	6	1	
증 감(A-B)	△1	0	7	7	19	2	△4	-	
신규사업참여사	3	10	7	7	8	3	8	2	
진 행 사 업	23	23	30	37	56	58	54	54	

〈표2〉 석유개발관련 조직 및 인력현황 (2000년 7월말 현재)

회원사명	인력현황			조직현황
	IMF이전	현재	증감	
(주) 경 동	4(1)	-	△4(△1)	팀해체, 협회탈퇴
(주) 고 합	4(1)	-	△4(△1)	팀해체, 협회탈퇴
금호석유화학*	3(2)	2(-)	△1(△2)	팀해체, 타부서통합
대림엔지니어링	6(-)	-	△6(-)	팀해체, 협회탈퇴
대성산업*	8(8)	8(6)	- (△2)	타부서통합
(주) 대 우*	15(12)	5(4)	△10(△8)	타부서통합
EAGC**	4(-)	1(-)	△3(-)	팀해체, 사업포기
(주) 동 원*	6(5)	6(3)	- (△2)	
마주코통상*	3(-)	2(-)	△1(-)	
삼성물산*	10(9)	7(6)	△3(△3)	타부서통합
(주) 삼 탄**	2(-)	1(-)	△1(-)	팀해체, 사업포기
삼환기업*	2(-)	2(-)	- (-)	
(주) 쌍 용*	4(1)	2(-)	△2(△1)	타부서통합
쌍용정유	2(-)	-	△2(-)	팀해체, 협회탈퇴
S K (주)*	26(16)	12(5)	△14(△11)	구조조정
SK 상사	3(-)	-	△3(-)	팀해체, 협회탈퇴
LG 상사*	5(5)	2(2)	△3(△3)	타부서통합
LG-Caltex 정유**	2(-)	-	△2(-)	개발사업포기
코데코에너지*	15(7)	5(2)	△10(△5)	구조조정
한라자원	5(5)	-	△5(△5)	팀해체, 협회탈퇴
한보에너지	6(6)	-	△6(△6)	팀해체, 협회탈퇴
한화에너지	6(6)	-	△6(△6)	팀해체, 협회탈퇴
현대정유**	5(5)	1(2)	△4(△3)	팀해체, 개발사업포기
현대종합상사*	8(7)	5(5)	△3(△2)	타부서통합
효성물산*	5(5)	2(-)	△3(△5)	팀해체, 타부서통합
계	159(101)	63(35)	△96(△66)	
회원사수	25	17	△8	
평균인력	6.36(4.04)	3.71(2.06)		

※ 회원사중 한국석유공사 제외. () 안은 기술인력
 * 현 대한석유협회 석유개발부문 회원사
 **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회원사

대한 투자 및 지원자금이 부실화됨에 따라 지난해부터 현행 석유개발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하였는데, 이를 담당하고 있는 석유심의회개발부회 기본정책소위원회가 최근 개최되어 중간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중간보고서 기본안에서 수입원유의 30%를 자주개발 원유로 조달한다는 현행 자주개발정책의 상징적인 수치 목표를 포기하고, 석유공단의 보유주식을 방출하여, 종합 에너지기업을 핵심으로 하는 민간주도의 개발체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대담한 자주개발정책의 전환을 제안하였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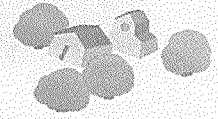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일본은 1960년대부터 해외석유개발사업에 진출하여 21세기초 원유수입량의 30%에 해당하는 120만 배럴/일을 자주개발원유로 확보한다는 정책목표아래 석유공단이 거액의 자금을 투입하였으나 1999년도의 자주개발원유도입율은 65.1만 배럴/일로 15.2%에 그쳤다. 목표량 달성을 위하여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투자로 인하여 지원자금의 상당부분이 부실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의 50%정도 밖에 달성하지 못한 일본의 실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일본의 석유개발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인가?

일본은 그동안 1,500에 달하는 석유개발 기술인력을 양성하였고 세계 주요 석유자원 보유국과의 유대를 강화하였으며 기초지질조사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였다. 어떠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진일보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한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석유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력의 양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수익창출을 제1의 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민간 석유개발기업이 점차 도태되어 간다면 2010년도 자주개발 원유 10% 확보라는 목표달성이 불가능한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고 우리의 석유개발사업은 기반자체가 붕괴되는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용어해설



• 보털사이트(Votal Site)

보털 사이트(Votal Site)란 전문성과 일관성을 의미하는 수직(Vertical)과 사이트의 관문을 의미하는 포털(Portal)의 합성어로 한 분야의 전문적인 포털 사이트의 역할을 하는 사이트를 말한다. 따라서 수직으로 깊게 특정 사용자를 위해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다. 보털은 인터넷 사이트가 급증하면서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서비스하는 포털이 폭넓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서비스다. 특히 특정 산업에 대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해 요즘 관련업체 사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는 B2B(기업간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미 국내 대형업체들이 보털 사이트를 앞세워 진출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앞으로 보털이 포털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로밍(Roming)

로밍(Roming)이란, 무선통신이나 이동통신에서 가입자가 어느 지역에 있던 망이 그 가입자가 있는 지역을 알아내 통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무선통신은 통화 가능지역이 하나의 망으로 구성되는데 이 망이 촘촘히 잘 구성될수록 통화품질이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어디 서나 통화가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업자별로 서비스 지역내에서 구성된 망들을 서로 연결하면 자동으로 통화할 수 있는 지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예컨대 국내외의 전화사업자들끼리 망을 연결하면 국제로밍이 되는 것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일부 이동전화 사업자들이 한국 홍콩 등과 국제로밍서비스를 시작한 상태다. 로밍 기술은 특히 IMT-2000의 기반기술로 평가되고 있다. IMT-2000의 목표는 전세계 통신망을 하나의 서비스 권역으로 로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